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201

2008年2月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문경

2008年 2月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논문

#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문 경

#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Youth Economic Education in Korea

2008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문 경

#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오 성 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문 경

정문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2007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 iv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Ⅱ. 경제교육의 이론적 고찰 ····· 2
1. 경제교육의 개념 및 교육목표 ····· 3
1) 경제교육의 개념 ····· 3
2) 경제교육의 목표 ····· 5
2. 경제교육의 성격 ····· 7
3. 경제교육의 필요성 ····· 8
4.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 ····· 11
1)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 ····· 11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 13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 16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 18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 19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 21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 24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현재) ····· 26

Ⅲ. 경제교육의 현황 분석 ····· 30
1.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 30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 ····· 32
1) 고등학교 교수-학습 ····· 32
2) 청소년 경제의식 ····· 33
3) 학교 경제교육 ····· 35
3. 외국의 경제교육 ····· 37
1) 미국 ····· 38
2) 영국 ····· 43
3) 일본 ····· 44
4. 외국 경제교육의 시사점 ····· 48

Ⅳ.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
1.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 ····· 51
1)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 ····· 51
2) 교과서 내용의 난이성 ····· 53
3) 경제교육 시수의 비중 축소 ····· 55
4)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개발 부족 ····· 57
5) 교사양성 및 재교육의 한계 ····· 59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 63
1)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 ····· 63
2)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 ····· 66
3) 가정 및 사회에서의 경제교육 강화 ····· 69

Ⅴ. 요약 및 결론 ····· 72

참고문헌 ····· 76

ABSTRACK ····· 80

<표 차례>

<표 Ⅱ-1> 경제교육의 목표체계 ····· 6
<표 Ⅱ-2> 교수요목시기의 경제교육 내용 ····· 13
<표 Ⅱ-3> 제1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15
<표 Ⅱ-4>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17
<표 Ⅱ-5> 제3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19
<표 Ⅱ-6> 제4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21
<표 Ⅱ-7> 제5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23
<표 Ⅱ-8> 제6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25
<표 Ⅱ-9> 현행(제7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28
<표 Ⅲ-1> 한·미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 비교 ····· 34
<표 Ⅲ-2>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주체 ····· 35
<표 Ⅲ-3> 참여하고 싶은 경제교육 관련 수업 ····· 37
<표 Ⅲ-4> 미국의 경제교육 ····· 41
<표 Ⅲ-5> 일본의 경제교육 ····· 47
<표 Ⅳ-1>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단원 구성 및 수업시간 ····· 56
<표 Ⅳ-2> 대학 재학시 경제 분야 수강 과목 수 ····· 60

(국문요약)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사회교육 정 문 경

오늘날 사회과의 목표는 유능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고, 유능한 시민이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시민을 말한다. 교육학적 측면에서 경제교육은 경제현상들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며,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과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키워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청소년들을 경제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시민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윤택하게 하며 사회나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는 다는 것은 필수충분조건이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며 특히 청소년기는 의식의 틀이 잡혀지는 시기로 이 때의 경제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으며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학교 경제교육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 사고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현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제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소양과 능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경제교육 현황의 일반적 고찰과 외국의 경제교육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할 경제교육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방안을 모색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발전에 더 나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 경제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있어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현 경제담당교사의 전문성 결여로 내실성 있는 경제교육과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교과서 내용이 이론·개념위주로 딱딱하게 서술되어 있고 암기위주의 단편적 경제지식 주입에 불과해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배양에 부적절하다. 넷째, 학습 보충자료의 결여 및 사례의 활용부족으로 경제교육의 흥미유발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학교 경제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이 재미없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경제 인식 기능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 연수제도 등을 통한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경제교육 관련 교사·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볼 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양질의 학습자료의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수방법과 내용적인 면이 보다 현실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 때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된다고 해서 경제교육이 완전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각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 대학교수 및 교육정책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보다 나은 경제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 따라서 경제교육이 보다 바람직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는 물론 미래 경제주체들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을 시킴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지식을 갖추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처럼 물물교환 형태가 생활경제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아주 다르게 변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교육은 경제학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학 자체가 경제교육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학은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경제교육은 경제학의 바탕 위에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더불어 미래 사회생활에서 부딪히게 될지도 모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위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로서의 각 경제주체가 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래의 경제주체들을 교육시키는 경제교육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 하겠다. 또 경제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틀이 잡혀지는 청소년기의 경제교육이 중요하다하겠다.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경제교육이다.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체계적인 경제교육의 밑받침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국가경제관, 시장경제, 기업의 역할,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이다. 경제적 가치관은 어려서부터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선택하고 인식함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경제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제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사고력, 의사 결정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경제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기본적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에 근거하였으며 이들 자료에는 국내·외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논문과 전문 서적, 사회과 교육 연구회에서 발행한 자료,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해설, 교육부, 한국 교육개발원 국민 경제연구소 등의 선행 연구물 등을 수집·분석·정리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었다. Ⅰ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Ⅱ장에서는 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경제교육의 개념 및 교육목표와 경제교육의 성격과 필요성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기에 걸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경제교육의 기본방향과 현황을 진단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경제교육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으며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으로서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그리고 가정 및 사회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Ⅴ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맺고자 한다.

# Ⅱ. 경제교육의 이론적 고찰

## 1. 경제교육의 개념 및 교육목표

### 1) 경제교육의 개념

경제활동은 일상생활의 연속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동물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경제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소양을 쌓음으로써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1)]

개인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만족시켜야 하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재화 및 용역을 획득하고 이를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경제행위라 하며, 일정한 사회조직과 질서에 경제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경제라 한다.[2)]

경제교육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함이다. 경제 활동을 통해 부딪히는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산업 사회에서의 경제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경제문제에서부터 인플레이션, 실업, 환율, 정부 규제 등의 복잡한 경제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교육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병모는 좁은 의미로

1) 이태근 외 3인, 『경제교육론』, 교학연구사, 1988, p. 16.

2) 상게서, p. 18.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넓은 의미로 ‘학교 밖의 사회 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3] 송대영은 “학교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경제생활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하였으며[4], 이영기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 및 그 적응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 이라고 고찰하고 있다.[5]

임천순은 경제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배양케 하고 경제현황의 이해를 도와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연구하였다.[6]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로 볼 때, 경제교육이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 지식과 경제윤리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함양시키게 되면 경제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경제 현실을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래의 주체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의 기본 원리를 심어주고 합리적 의사 결정과 경제 질서 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모든 사람이 생활 교육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제교육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학교에서는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둘째,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입관 없이 새로운 경제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3) 최병모, “미래지향적 학교 경제교육의 목적과 기본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교육협의회 자료집. 1986, p. 23.

4) 송대영, 『사회생활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0, p. 330.

5) 이영기・윤용탁, “정치・경제교육론”, 『사대논총』,제21집, 서울대 사범대학, 1980, p. 9.

6) 임천순, “학교경제교육 활성화를 생각한다”, 『교육개발』,제10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1988, p. 11.

각급 학교를 통하여 경제교육에 관한 제반 협조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자원과 같이 경제 자원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자원을 모든 기관에 두루 배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에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직장이나 사회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은 비체계적이며 특정부분의 이해관계가 따르지만 학교 경제교육은 보다 체계적이며 중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환언하자면 청소년의 경제교육은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청소년들은 경제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소양을 지닌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7] 이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경제지식을 교육함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경제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경제교육의 목표

오늘날의 사회과의 목표는 유능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고, 유능한 시민이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시민을 말한다. 이 능력은 지식과 가치의 양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경제교육의 목표도 구성요소를 명료화하면 경제지식과 경제가치의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에 공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우리의 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배양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다.[8]

경제교육의 목적은 학자들이나 국가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최병모는 아래 <표 Ⅱ-1>에서처럼 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학 자체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그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유능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고, 경제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능, 그리고 가치・태도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

7) 유학수, “청소년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7.

8) 이진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7.

첫째, 지식면에서 경제현상들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와 경제현상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제문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배양하는 것이다.

셋째, 가치·태도면에서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우리의 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배양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9)]

<표 Ⅱ-1> 경제교육의 목표체계

| 구 분 | 행동 영역별 목표 | 총괄 목표 |
|---|---|---|
| 지 식 | 자유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 이해와 우리나라 경제현상에 내재된 인과 관계 파악 |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 |
| 기 능 | 경제현상의 탐구와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의사결정, 사회 참여 능력 신장 | |
| 가치·태도 | 경제윤리 의식을 지닌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역할을 통해 개인 생활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 | |

자료: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대한교과서, 2001, p. 257.

이영기는 경제교육의 목표를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경제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 '경제의 기본원리의 이해', '경제문제 해결능력', '경제상황 비판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서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및 미래사회에서 '합리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지적 영역의 목표로 하

9) 최병모, "사회과 교육에서의 경제교육," 『교육개발 통권』, 34호, 한국교육개발원, 1985, pp. 73~74.

고, 그 바탕위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 제시하였다.[10] 미국 경제교육연합회(NCEE)의 경제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경제개념의 이해이다. 둘째, 경제의 주요 개념간의 상호관계의 평가이다. 셋째, 경제구조의 파악이다. 넷째, 공공과 개인의 경제적 관심에 관한 지식이다. 다섯째, 경제적 의사결정에 관한 이성적 접근 방식의 훈련으로 구체화이다.[11]

## 2. 경제교육의 성격

사회과 교육은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심리학, 역사학, 지리학 등을 어떠한 교육 목적 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12] 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이에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사회지식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려는 교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은 경제현상을 학습 대상으로 하며, 그 체계는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윤리에 더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교육은 공통 필수 교과인 사회과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직감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 어려우며 자기의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

---

10) 이영기, 『사회과 교육과 경제교육』, 고등학교 경제교육 연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87, p. 47.

11) 안경연, "고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6.

12) 강환국, 『사회과교육학』, 학연사, 1998, p. 3.

고 판단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한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경제교육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며, 여러 가지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능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교육은 단순한 경제지식의 전달이 아닌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응하고,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 지식, 경제적 사고력,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이 수행되게끔 요구 된다.[13)]

최병모는 이러한 경제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경제교육은 경제현상을 학습대상으로 하며 그 체계는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경제교육은 공통필수 교과인 사회과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셋째, 경제교육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며 여러 가지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 양성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경제교육의 성격으로 볼 때, 경제교육의 기능은 인간이 그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의 이해력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14)]

## 3. 경제교육의 필요성

경제교육은 인간의 생애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

13) 박준석,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교수·학습방법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0~11.

14) 최병모, “사회과 경제교육론”,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제22호, 1989, p. 74.

해결을 위한 경제 이해력 향상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은 한 평생 학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15)]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정부의 정책이 경제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으로서 정책에 대한 경전한 비판과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점이다.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수준이 낮으면 높은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절실하다.[16)]

첫째, 절약의 생활화를 해서 필요하다. 경제활동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비해서 생산수단인 자원의 존재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질서차원에서 필요하다. 경제생활이나 경제활동 역시 사회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제도, 규범, 관습은 물론 그 사회 특유의 윤리와 가치관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올바른 물질생활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현대 산업사회는 유사 이래 가장 발전된 물질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물질문명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윤택해졌고 편리해지기는 하였지만, 물질문명이 빚어낸 부작용은 사회에서 각종 병리현상을 우발하고 있다. 이는 곧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부조화가 원인임이 주지적 사실이다. 따라서 올바른 물질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경제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미래 경제사회에서 부딪히게 될 경제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

15) 임천순 외, 『학교경제교육의 기본방향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국민경제연구소, 1988, p. 27.

16) 김위곤, “고등학교 사회과과정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7~8.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학생들은 생산자, 소비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미래 경제사회의 주체들이다. 이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력과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째, 실생활의 유용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경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받은 기회는 대학에서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평생의 지식으로 간직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식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경제교육은 그 필요성이 간구된다.

여섯째, 태도나 가치관의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윤리성의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철학적 또는 윤리적인 원칙만을 주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합리적인 이념'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 추구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외형적 가치보다 더 내면에 들어 있는 본질적인 가치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동시에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의 함양도 같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정직성이라는 덕목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수준, 단계의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목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강조한다면, 공리주의 철학의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현대 경제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에서 정직성이라는 덕목의 강조는 매우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고등학교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느 단계에서라도 이것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치의 측면은 이념이나 체제의 선택 및 유지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7]

일곱째, 경제이론, 경제논리의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과학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이 있어야 응용이 가능하다. 또 이론 교육자체는

17) 김병주 외 2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7참조.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과학적인 탐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대학의 사회과학과목의 기본적인 소양을 개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 경제교육은 결국 사회과의 국민적 자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자유시민경제원리의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미래의 한국 사회를 고려할 때 경제교육이 지향할 바를 부각시키고 내용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강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 4.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

학교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시발점은 교육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바로 이 교육설계도이며 그 안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과 그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등이 계획 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 내용이나 방향이 교육현장에서의 특정 교과목의 부침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며 그 교육적 파급효과 또한 지대하다.[18]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19세기말 신 학제를 실시할 당시 주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제' 또는 '경제론' 이라는 교과목으로 중학교 또는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을 효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이 실제로 도입·실시될 수 있었던 시기는 교수요목(1946)이 발표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9]

### 1)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

---

18) 손학모,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3집,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pp. 206~207,

19) 문상민, "사회과목의 경제교육 강화 및 활성화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16.

이 과정기는 '사회생활과' 탄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군정 당국이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면서 미국의 사회과를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공민, 지리, 역사과로 분과되어 있던 사회과 관련 교과목을 통합하여 '사회생활과' 라는 새로운 교과를 성립시킨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사회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의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정신을 익히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효율의 증진' 과 '시민적 자질의 육성' 을 목표로 출발하여 발전해 온 미국의 사회과가 비교적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사회생활과' 의 목표가 진술되고 공민·지리·역사 분야별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사회생활과' 목표에는 경제관련 구절은 없었으며 공민영역 목표에 '국민경제생활을 완수하기 위하여 협동정신과 상호의존의 책임관념(중략) 아울러 정치·경제·윤리·철학의 개념을 이해시켜서(후략)' 라고 하여 경제생활을 완수하기 위한 경제개념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교과상호간의 횡적인 관련을 짓지 못하였으며, 교과목 내에서도 지적인 체계가 소홀히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하는데 불과하였다.[20]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2>에 나타나 있다.

20)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집, 1998, p. 131.

<표 Ⅱ-2> 교수요목기의 경제교육 내용

| | | |
|---|---|---|
|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 | 경제개념을 이해시켜 정확한 현실을 파악케 하고 장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지도목표 | | 제2학년(경제론): 국민경제의 구조, 근로정신, 생산, 분배, 소비과정,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 내용 | 2학년 (경제론) | 1. 우리 국민경제<br>2. 국민생활과 노동<br>3. 생산과 소비<br>4. 유통<br>5. 분배<br>6. 우리나라의 산업<br>7. 재정<br>8. 사회개선<br>9. 자유경제와 통제경제 |

자료: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집, 1998, p. 133.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종래의 교수요목기의 공민 교육이 1955년 학교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교과서가 편찬되게 되었다. 그러나 개편된 교육과정은 미국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사회과 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954년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는 우리나라 교육의 과도기로서 6.25전쟁 이후의 사상적 혼란, 재정 파탄, 물질주의적 사고의 팽배 등 국가적 난국을 타개할 필요성에 따라 당시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반공 사상과 기숙 교육 등이었다. 문교

부령 제46호(1955.8.1 공포)에 따르면, 고등학교 '일반사회'는 고등학교 사회과가 담당하는 영역 중 지리적인, 역사적인, 도덕적인 면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면을 주로 담당하게 되어 경제교육을 최초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일반사회의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은 「정치와 사회」, 2학년은 「경제와 사회」, 3학년은 「문화와 창조」라 하여 명목상 통합을 취했다. 이 시기의 경제교육은 2학년 일반사회에서 「경제와 사회」라는 교과서가 편찬되어 어느 때보다 풍부한 양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국의 교육 원조에 의한 미국식 교육의 모방으로, 내용에 있어서도 고정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원론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내용은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제1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 | 경제적 현실을 해명하여 그 당면문제를 분석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
|---|---|---|---|
| 지도목표 | | 없음 | |
| 구분 | | 단원 | 주제 |
| 내용 | 1학년 | 1.재정의 의미 및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 1.돈이 쓰이는 곳<br>2.재정의 수입<br>3.국가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br>4.우리나라 재정의 현실<br>5.우리나라 재정의 불건전한 원인 |
| | 2학년 (일반사회) | 1.우리 생활과 경제<br>2.생산과 산업<br>3.생산의 요소<br>4.기업<br>5.우리나라의 산업<br>6.수요 공급 및 가격<br>7.화폐<br>8.금융<br>9.소비<br>10.국민소득의 순환<br>11.재정<br>12.경제의 변동<br>13.경제와 도덕<br>14.실업문제와 노동문제<br>15. 사회보장과 사회사업<br>16.경제문제와 국제적 협동 | |

자료: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집, 1998, p. 133.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이 과정기는 1963년 2월 문교부령 제 119호, 120호, 121호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된 때로부터 1973년 2월 문교부령 제 310호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고 1973년 8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호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1976년 2월 문교부령 제 379호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공포되기까지를 말한다.[21] 이교육과정은 일군의 교수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교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제로 보는 시각으로서 경험중심교육과정[22]이라 부른다.

2차로 제정된 교육과정의 특징은 민족 주체성과 경제 성장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의 명칭도 '사회생활과'를 '사회과'로, 또한 '도덕과'를 '국민윤리 교과'로 바꾸면서 국민 정신교육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의 고등학교 경제교육은 「일반사회」와 「정치·경제」교과에서 다루어졌는데「일반사회」는 공통필수로 「정치·경제」는 인문계 과정의 선택 필수로 채택되었다.

'일반사회'에서는 국민 경제 생활을 다루면서 구 교과서에는 없었던 국토 건설과 회사 문제 등 근대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정치·경제'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경제 현상을 반영한 것이 당시의 국가 정책과 관련이 크다 하겠다.

경제교육의 내용면에서 과거에는 주로 경제 이론에 관한 내용과 미시경제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던 것에 비해, 근대화와 경제 개발 등에 관한 거시경제 이론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4>에서 볼 수 있다.

---

21) 조도근, "사회과에서의 경제교육 고찰",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제17호, 1984, p. 62.

22) 경험중심교육과정(empirical education): 피교육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교육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는 교육이론.

<표 Ⅱ-4>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 민주주의의 사회생활의 제반 원리와 기능을 이해시키고 이를 경제조직에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
|---|---|---|
| 지도목표 | 일반사회: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
| 구분 | 단원 | 주제 |
| 일반사회 | 1. 국민경제 생활 | 1. 근대경제의 성립과 발달<br>2. 국민경제의 순환<br>3. 생산과 국민생활<br>4. 물가의 변동과 경제생활<br>5. 국민저축과 경제발전<br>6. 국가재정과 국민소득<br>7. 경제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조 |
| 정치・경제 | 1. 경제의 구조 | 1. 생산과 기업<br>2. 가격기구<br>3. 소득과 소비<br>4. 화폐 금융과 재정<br>5. 무역과 국내경제와의 관계<br>6. 경기변동<br>7.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
| | 2. 우리나라의 경제 | 1. 산업의 구조와 특색<br>2. 농업의 현실과 장래<br>3. 공업의 현실과 장래<br>4. 종합경제계획과 그 달성의 길<br>5.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

자료: 피영로,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48.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이 과정기는 1973년 2월 문교부령 제310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1973년 8월 문교부령 제305호로 중학교 교육과정이 1974년 12월 31일 제350호로 인문계 공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공포된 때로부터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2호로 각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공포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종래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교육과정을 표방하였다. 각 교과에 내재하여 있는 지적 탐구과정의 체계 또는 조직을 특징으로 하여 학문 그 자체의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면에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규범·요구와, 그리고 교육의 방법적 원리면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과학주의적 요구를 조화, 충족시키려는 큰 이상 아래 개편되었다.[23]

이 시기에서는 「일반사회」교과목이 없어지고 「정치·경제」교과목에만 경제 관련 목표와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육목표를 보면,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서 경제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 교육을 강화했고, 그를 위해 국사를 별도의 독립교과로 만들었다. 또 반공의식, 국가 의식의 고양을 위해 국민 윤리를 수위 교과로 독립시켰다. 「정치·경제」의 교과서의 경제 영역을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 개정시와 큰 차이는 없지만, 경제 일반론과 함께 주로 우리나라 경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남·북한 경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이 특색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23) 강환국, 『사회과교육론』, 학연사, 1988, pp. 78~81.

<표 Ⅱ-5> 제3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
|---|---|---|
| 지도목표 | 정치・경제: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 | |
| 구분 | 단 원 | 주 제 |
| 정치・경제 | 1.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 1. 한국 경제의 근대화<br>2. 가계와 소비생활<br>3. 기업과 생산활동<br>4. 시장과 가격결정<br>5. 국민소득과 경제순환<br>6. 통화와 금융의 역할<br>7. 물가와 국민생활<br>8. 재정과 국민경제<br>9. 국제경제와 무역<br>10. 남북한의 경제비교 |

자료: 피영로,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48.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이 과정기는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42호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된 이후를 말한다.[24] 이 시기는 제5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교육 개혁 조치와 다가올 미래 사회(민주사회, 고도 산업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사회, 통일 조국)에 기대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함,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24) 조도근, 전게논문, p. 65.

자주적인 사람)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의 기본방향은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충실, 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25]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를 통합하여「사회Ⅰ」,「사회Ⅱ」로 체제를 바꾸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기초 내용을 고루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중「사회Ⅰ」은 국가적 현실과 국민적 과제에 비중을 두었고,「사회Ⅱ」는「사회Ⅰ」의 내용을 심화시켜 사회과학의 학문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사회Ⅰ」과「사회Ⅱ」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학습 과정에서 중복의 번거로움이 제기되었다.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6>와 같다.

2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 7.

<표 Ⅱ-6> 제4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 | |
|---|---|---|
|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 |
| 지도 목표 | 사회Ⅰ: 국민경제의 순환과 물가, 재정, 금융 등의 기초내용과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시킨다.<br>사회Ⅱ: 사회Ⅰ에서 학습한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이해시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 | |
| 구분 | 단원 | 주제 |
| 사회Ⅰ | 1. 경제생활 |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br>2. 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br>3. 가격과 물가<br>4. 통화와 금융<br>5. 재정과 국민경제<br>6. 국제무역과 국민경제<br>7. 한국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
| 사회Ⅱ | 1. 국민경제 | 1. 경제생활의 발달과 경제문제의 본질<br>2. 생산, 분배 소비<br>3. 국제경제<br>4. 경제성장과 경기변동<br>5.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

자료: 강형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44～48.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이 과정기는 1987년에 문교부 고시 제 87-7호 교육법 제155조 1항으로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1990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가장 큰 변화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던 것을 「정치·경제」과목과 「사회·문화」과목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라는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26]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종전의 「사회Ⅰ」,「사회Ⅱ」가 3차 교육과정기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되돌아간 것이며, 정치내용에 포함시켜 왔던 헌법과 법률 내용을 「사회·문화」에 포함시킨 것이 큰 변화이다. 87년도에 강력히 추진된 경제교육 강화의 영향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4차 교육과정의 「사회Ⅰ」,「사회Ⅱ」에서 경제 부문만을 별도로 개편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의미로 「정치·경제」를 공통필수로 정하고, 단위 수를 종전의 「사회Ⅰ」보다 높였다.[27]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7>와 같다.

26) 심현남,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 36.

27)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삼진인쇄주식회사, 1989, p. 183.

<표 Ⅱ-7> 제5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다. | |
|---|---|---|
| 지도목표 | 정치·경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서부터 국민경제의 구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게 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지니게 한다. | |
| 구분 | 단원 | 주제 |
| 정치·경제 | 1. 정치경제 현상의 인식 | 1. 경제와 국민생활 |
| | 5. 가계·기업 및 시장 | 1. 사회생활과 경제활동<br>2.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br>3. 합리적 소비<br>4. 합리적 생산<br>5. 시장과 경쟁 |
| | 6. 국민경제의 구조와 순환 | 1. 경제순환과 국민소득<br>2. 화폐와 금융<br>3. 정부와 경제<br>4.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
| | 7. 국민경제와 경제발전 | 1. 국제무역과 무역정책<br>2. 국제수지와 환율<br>3. 국제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br>4. 국제경제협력과 경제발전 |
| | 8.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 1.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성립과 발전<br>2.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황<br>3. 고용과 노사관계<br>4. 소득분배와 복지정책<br>5.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자료: 강형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53~55.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이 시기는 민주화, 정보 사회화, 고도 산업화, 국제화, 통일대비 등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현실의 교육 문제점을 개선하여 초·중등 학교의 기초, 보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의 함양과 창의성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또한「공통사회」라는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였는데,「사회」,「일반사회」영역과「지리」(한국지리)영역으로 양분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역사」(국사),「지리」(한국지리),「일반사회」가 공통 필수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정치·경제」가「정치」와「경제」로 분리되었다.「공통사회」이외의 과목은 모두 선택 과목으로 정하였기 때문에,「정치·경제」를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 둘 필요가 없었고, 이는 선택 과목의 확대 방침과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동안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28]

새로운 교육과정에서「경제」가 독립 교과목으로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경제분야의 위상이 격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경제」(4단위)가 선택 과목이 됨으로써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든 학생이「공통사회」(8단위)는 이수하게 될 것이나 이 과목에서 경제분야에 할당된 비중은 총 14개 단원 가운데 단1개 단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공통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29]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8>와 같다.

28) 김경근, "한국 고등학교의 경제 인지력 실태", 『경제교육』,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1993, p. 19.

29) 상게논문, p. 22.

<표 Ⅱ-8> 제6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table>
<tr><td colspan="2">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td><td colspan="2">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 분야의 지식과 탐구방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td></tr>
<tr><td colspan="2">지도목표</td><td colspan="2">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가치 및 태도를 존중하고,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경제사회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인이 되게 한다.</td></tr>
<tr><td colspan="2">구분</td><td>단원</td><td>주제</td></tr>
<tr><td rowspan="5">내용</td><td>공통사회</td><td>4. 합리적인 선택과 시장</td><td>1. 경제적 자유과 책임<br>2. 경제성장과 경제문제<br>3.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br>4.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과제</td></tr>
<tr><td rowspan="4">경제</td><td>1. 경제생활의 이해</td><td>1. 경제문제와 선택<br>2. 경제생활과 경제체제<br>3. 경제활동의 측정과 경제정보<br>4. 바람직한 경제사회</td></tr>
<tr><td>2. 시장과 경제활동</td><td>1. 가계와 경제활동<br>2. 기업과 경제활동<br>3. 시장과 가격결정<br>4. 시장의 형태와 특성</td></tr>
<tr><td>3. 시장경제와 정부</td><td>1. 정부의 경제적 역할<br>2. 조세와 예산<br>3. 재정정책<br>4.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 활동</td></tr>
<tr><td>4. 현대 국민경제의 이해</td><td>1.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br>2. 경기의 순환과 성장<br>3. 화폐와 금융<br>4. 국민경제와 국제경제</td></tr>
</table>

| | | | |
|---|---|---|---|
| | | 5.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 1.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br>2. 노동시장과 산업평화<br>3. 소득분배와 사회보장<br>4. 기술개발과 경쟁력<br>5. 환경보호<br>6. 국제협력의 증진 |
| | | 6. 우리경제의 발전과 당면과제 | 1. 우리 경제의 발전<br>2.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br>3. 세계속의 우리경제 |

자료: 피영로,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59.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현재)

이 시기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신설과 함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등학교는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의 10학년과 선택교육 기간에서의 11-12학년으로 나누어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에서는 9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보다 심화된 수준의 지식과 기능, 그리고 이들을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 문제에의 적용을 시도하였고, 11-12학년의 선택 교육 기간에는 사회과 관련 1개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과 9개 과목의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의 편제를 살펴보면 첫째, 제6차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공통사회」과목이 없어지고 10학년「사회」로 대체되었다. 둘째,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일반선택 과목이며, 다른 하나는 심화 선택 과목이다. 사회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은「인간 사회와 환경」과목이고, 심화 선택 과목은 일반

사회 영역에서「법과 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가 개발되었다. 셋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심화선택과목의 개설은 학생들의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30]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경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0학년 과정에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단원에서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현대 경제문제와 해결 방안',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 기본 문제와 경제 현상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국민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국민소득, 물가, 고용, 국제 수지 등의 기본적인 경제개념만 활용하여 우리 경제 현실의 이해를 돕고 있다.[31] 주된 내용은 다음의 <표 Ⅱ-9>와 같다.

30)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p. 10~11.

3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1998, p. 221.

<표 Ⅱ-9> 현행(제 7차) 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내용

| 영 역 | 내 용 | |
|---|---|---|
| | 주 제 | 내용 요소 |
|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 1. 경제생활의 의미<br>2.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br>3.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 | -경제생활의 영역 구분<br>-경제정보의 수집과 분석<br>-경제적 의사 결정과 합리적 선택<br>-경제체제의 차이 비교<br>-경제의식과 이상적인 경제 질서 |
| 시장과 경제 활동 | 1. 시장가격의 기능<br>2.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br>3. 시장기능의 한계와 보완대책 | -시장 경제의 특성과 기본 질서<br>-시장 경제의 자원배분 과정<br>-시장 가격의 결정 과정과 균형가격의 의미<br>-시장실패의 원인과 결과<br>-시장에 대한 정부 관여와 시민운동<br>-정부실패와 그 대책 |
|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 1. 바람직한 소비선택<br>2.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기업윤리<br>3. 책임 있는 재정운영 | -소득과 소비지출<br>-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소비<br>-합리적인 기업 경영원리<b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br>-공공정책의 결정과정<br>-재원 조달과 재정지출<br>-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정 운용 |
|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 1. 국민 경제의 흐름<br>2. 경제성장과 안정화 정책 |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br>-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br>-경제성장과 국민 소득의 분배<br>-경기변동의 양상 |

| | | |
|---|---|---|
| | | -물가안정과 고용 증대<br>-안정적 성장과 재정 금융 정책 |
| 세계시장과<br>한국경제의 미래전망 | 1. 국제 거래와 경쟁력<br>2.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br>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 -개방화 시대의 경제관계<br>-국제 경쟁력의 향상<br>-통일 한국의 경제적 과제<br>-국제간의 경제 마찰<br>-인류 공동체의 경제문제 |

자료: 조도근 외 6인,『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두산교육, 2002, pp. 30～34.

# Ⅲ. 경제교육의 현황 분석

## 1.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국가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과편재와 이수단위 및 과목별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규정한 지침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의 방향과 기대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실용성·학습자 주도·고급 사고력'등을 내세웠다.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하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그 편익은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는 21세기 정보사회를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 교육은 개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온전하게 해 나가도록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각자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지위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가치·태도를 기르는 일이다. 경제교육도 소비자, 투자자, 생산자(기업가·근로자), 납세자의 역할에 필요한 경제지식과 기능 및 경제적 행태를 올바르게 함양시키려는 것이다. 경제교육이 상정하는 인간상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 변동을 예견하며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소양을 갖춘 경제적 시민성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은 경제를 '경제학의 추상적인 이론을 암기하는 과목'정도로 인식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그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 문제, 적은 분량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념과 이론을 축약식으로 진술한 교과서, 실제 경제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학습 내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교육 내용이나 교과서 구성상의 문제도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중심이라는 학교 상황에서 교사의 재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선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하려는 제7차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경제교육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32] 그리고 경제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성을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에 적응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합리적, 윤리적 경제인'이라고 하여, 인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방향은 '사회과학 교육=사회과 교육'이라는 학문 중심 패러다임을 '사회적 역할 학습=사회과 교육'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완전 대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 그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될 객관적·절대적 진리라 보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검증·반증 또는 새로운 것을 구성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설명→학습자의 암기'라는 전통적인 학습이 경제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및 미래 사회 예측 등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교육에 대하여 특히 강조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의 이념과 운용 과정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시장경제의 중심인 가격기능, 이윤, 이윤 동기, 자유 선택, 경쟁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시장 경제 체제에 맞도록 경제 주체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제도와 행태 개선방안도 탐구 하여 경제주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실 경제문제의 인식과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 자체의 가치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의 세계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이론도 현실적인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제교육에 현실 문제를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내용도 우리 사회의 현실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성한다.

---

32) 김정호,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방향과 내용체계", 『경제교육종합교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2003, p. 2.

셋째, 세계시장경제와 미래경제변동에 대응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세계사회는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개편되며, 인류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경제사회 변동을 전망하여, 그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류공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등을 강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에서는 국제경제의 동향과 우리 경제의 대응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현상의 이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현상을 인식하는 데에 다학문적인 통합 방법을 활용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학문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 방법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도적 규범과 경제적 행태의 역사적·문화적 이해, 경제정책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자원 문제와 외국과의 교류 방향 이해가 필요하다.[33]

##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

### 1) 고등학교 교수-학습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에게 소외된 상태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그나마 중심 과목인 영어와 수학은 입시에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요에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한다지만, 경제나 정치 등 주변 과목에서 교사는 일방적으로 제 할일(강의)만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34] 현재의 경제교육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될 내용(개념과 이론의 경우)이 경제학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33) 김정호, 상게논문, pp. 3~5에서 재인용.

34) 송재희,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15.

하는 이론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이론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도움과 의미를 줄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 하는 논의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즉, 현재 경제교육 문제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는 교과서 설명 방법이나 학습자 흥미도 또는 교사 수업방법을 문제로 보기에 앞서, 경제교육이 지향하는 패러다임(경제학 이론 중심)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교수-학습 과정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순서라 할 수 있다.

경제교과서 구성체계나 학습 자료를 보면 경제학 이론 체계를 모두 포괄하지 않고, 국가 경제 성장의 성과를 홍보하지 않으며 현실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학습을 강조하여 이론을 현실인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어 왔던 추상적인 경제학 이론 교육을 벗어나서 경제교육의 독자성을 찾고, 학생의 생활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35]

2) 청소년 경제의식

지난 2003년과 200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는 우리 청소년의 경제인식 수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과반수의 학생들이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소비자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이며, 정부개입 없이는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땅을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는 쇄국주의적 주장에 동의하는 학생들도 70%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답변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이 높아져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굳이 이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제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과목

35) 상게논문, p. 18.

을 이수한 미국 학생들은 점수가 30%이상 높아진 반면 한국 학생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육의 문제는 교사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5년 9월에 사회과 중등교사 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현행 학교경제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36)]

<표 Ⅲ-1> 한・미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 비교

(단위: 점)

| 한국 고등학생 | | 미국 고등학생 | |
|---|---|---|---|
| 경제과목 수강 | 수강하지 않음 | 경제과목 수강 | 수강하지 않음 |
| 57.8 | 54.7 | 64.34 | 47.61 |
| 55.7 | | 61.21 | |

주: 한국학생의 경제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점수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임.
자료: 전홍택・김진영,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비교",『경제교육』, KDI경제정보센터, 2006, p. 4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아래의 <표 Ⅲ-2>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보통수준의 국가(응답자의 50.6%)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로는 기업(45.3%) 〉 정부(17.3%) 〉 시민단체(16.0%) 〉 소비자(12.3%) 〉 노동조합(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우리 경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2003년의 설문 결과, 경제발전의 주체로 정부(32.7%) 〉 소비자(23.5%) 〉 기업(22.6%) 순임에 비추어 그동안 시장 경제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의 정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36)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 경제교육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신문』, 2006.10.16.

<표 Ⅲ-2>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주체

(단위: %)

| | 정부 | 기업 | 소비자 | 시민단체 | 외국투자자 | 노동조합 | 전체 |
|---|---|---|---|---|---|---|---|
| 2006년 조사 | 17.3 | 45.3 | 12.3 | 16.0 | 4.2 | 4.8 | 100.0 |
| 2003년 조사 | 32.7 | 22.6 | 23.5 | 11.1 | 6.7 | 3.5 | 100.0 |
| 증감 | -15.4 | +22.7 | -11.2 | +4.9 | -2.5 | +1.3 | - |

자료: 서승환, "학생들의 경제인식 및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향",『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6. p. 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장을 신뢰한다'의 비율이 16.2%에 그친 반면,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3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시장신뢰 및 시장불신의 비율은 각각 16.2% 및 22.2%인 반면, 고등학생은 시장신뢰 및 시장불신의 비율은 각각 14.5% 및 51.7%인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장을 불신하는 비율이 2003년도와 비슷하게 늘어나 각 급 학교에서의 시장경제교육이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다'(31.8%)와 '관심이 없다'(26.5%)가 비슷한 수준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업에 흥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흥미 있는 수업자료가 없어서'(36.0%) 〉 '경제수업에 관심이 없어서'(22.7%) 〉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재미없어서'(21.6%) 〉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19.7%)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감 있는 교과서 및 교재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37]

3) 학교 경제교육

교육과정과 입시에서 경제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37) 서승환, "학생들의 경제인식 및 학교경제교육의 개선방향", 「한국경제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KDI 한국경제학회 공동세미나 보도자료. 2006. p. 3.

사회과목이 역사·지리·일반사회로 구분되고 일반사회가 다시 정치·경제·사회문화·법의 네 과목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경제과목이 필수과정에서 제외되고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경제수업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필수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의 3개 단원(총 80여면)만이 경제교육에 할당되어 있다.[38] 이렇듯 경제과목의 비중이 축소된 것은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1997년 당시만 해도 외환위기 전이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대학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워낙 미비한 탓에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38문항(57점) 중 불과 4문항 정도만이 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총 수능 점수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39] 또한 수업시간의 축소로 수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대학이 일반적으로 시수에 비례하여 입학점수에 부여하는 가중치도 높지 않다.[40]

다음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방대하고 실제 경제생활과 괴리가 있어 관심과 흥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의 대부분이 경제학 원론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한정된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 무리가 있다. 실제 한국경제신문사의 조사에서 조사대상 교사의 67.1%가 현재 경제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나 내용이 학생들의 능력이나 수업시간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사가 2002년 말 6개 대도시 중·고등학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1]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경제지식이 현실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대답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점도 현실과 유리된 학교 경제교육의 현 주소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42]

---

38) 진덕용,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경제교육』,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03, p. 1.

39) “경제교육 강화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 2003.4.19.

40) 도미라, “청소년 경제교육 내용과 체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10.

41) “학교 경제교육은 입시에 밀려 푸대접”, 『중앙일보』, 2003.4.23.

42) 도미라, 전게논문, p. 10.

2006년 KD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참여하고 싶은 경제관련 수업에 대해서는 '체험식 경제교육'(29.7%), '경제캠프'(22.5%), '회사나 공장견학'(17.7%) 순으로 높은 반면. '기업인 강의'(6.8%), '경제전문가 강의'(5.6%)는 상대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참여하고 싶은 경제교육 관련수업

(단위: %)

| 경제캠프 | 기업인 강의 | 경제전문가 강의 | 회사나 공장견학 | 체험식 경제교육 | 관심 없다 | 전체 |
|---|---|---|---|---|---|---|
| 22.5 | 6.8 | 5.6 | 17.7 | 29.7 | 17.8 | 100.0 |

자료: 서승환, "학생들의 경제인식 및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향",『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6. p.3.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시장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의 경우 동화식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만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험식 경제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시장경제의 전파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물 및 시장 경제지식을 테스트한 후 인증서를 발급 또는 교육이수 결과를 대학입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될 만하다.[43)]

## 3. 외국의 경제교육

국가에 따라 경제체제가 다르고 같은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도 처해진 경제현

43) 서승환, "학생들의 경제인식 및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향",『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6. p. 4.

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그 사회의 전통문화와 사회환경, 배경이나 교육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에 적합한 교육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각 나라의 경제교육의 방향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 미국

미국의 학교교육은 연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정부의 소관으로 독립되어 있다. 교육자치 권한은 미국의 50개 각 주에 분산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주가 교육과정 결정과정을 약 16,000개 이상의 지방 학교구(school district)에 위임하고 있다.[44] 미국 경제교육은 미국경제교육학회(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경제교육학회의 활동 현황은 연방경제교육위원회와 48개 주에 있는 주경제교육위원회(Stat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및 각 주에 있는 290여 개의 경제교육센터(Center for Economic Educ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중에 있는 290여 개의 경제교육센터의 활동비용은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45]

미국의 학교경제교육은 각 지방별로 그곳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경제교육의 방법, 내용, 중점사항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학교경제교육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 주의 독립성, 분권화된 사회조직,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주도의 통일된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제교육은 각 급 학교의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경제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교육내용면에서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44) 이은일,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효율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 45~46.

45) 이주형, “사회과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28.

즉 정부 경제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회경제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경제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미국의 경제교육이 지향하는 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학교경제교육은 경제 및 경제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제문제에 직면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국경제교육협회(NCEE)는 학교 경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경제개념과 정확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특정 경제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고 있다.[46]

사회과(social studies)는 1916년에 미국에서 역사, 지리, 공민 등 시민의식(citizen ship)의 배양을 중심 교육 목표로 하는 교과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미국에서 사회과가 성립된 것은 실용주의의 교육 사조와 의무교육, 사회적 위기, 국내외 정세변화, 교육의 의의 전환에서 연유되어 현재는 주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1916년에 탄생한 사회과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세계 대공황, 정치·사회·경제적 혼란과 불안)에 대처하고 특별히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성 교육을 위한 중심 교과로서 인식되게 되었다.[47]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제교육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사회과의 전형적인 계열은 9학년에「일반사회」를, 10학년에「세계사」와「세계학」을, 11학년에「미국사」를 12학년은「경제학」,「미국 정부학」,「심리학」,「사회학」이나「사회문제」그리고 다른 과목을 포함해서 2학기 정도의 강좌를 들어야 한다.[48]

기본개념에서는 희소성, 기회비용과 상방관계, 생산성, 경제체제, 경제제도와 동기, 교환, 화폐, 상호의존을 선정하였고, 미시경제에서는 시장과 가격, 공급과 수요, 경쟁과 시장구조, 소득분배, 시장실패, 정부의 역할을 선정하였으며 거시경제에서는

---

46) 김정신, “올바른 경제관 정립을 위한 중등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 11~12.

47) 이태근, 『사회과 교수법』, 교학연구사, 1983, pp. 14~16.

48) 조병철, 『국제적 시각의 경제교육』, 문창사, 1997, p. 169에서 재인용.

국민총생산, 총공급, 총수요, 실업,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제에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환율과 국제수지, 성장과 안정의 국제적 양상을 각각 선정하였다.[49]

49) 김정호, “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올바른 경제교육을』, 자유기업센터, 1997, p. 60.

<표 Ⅲ-4> 미국의 경제교육

| 개념 영역 | 내 용 |
|---|---|
| 기초경제개념 | -기회비용과 선택<br>-생산성-전문화와 분업, 자본재에 대한 투자,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br>-경제체제<br>-경제제도와 경제적 유인<br>-교환과 화폐 및 상호 의존성 |
| 미시경제개념 | -시장 가격-유인(incentive), 자원・상품・용역 그리고 화폐 지급 사이의 순환<br>-수요와 공급<br>-경쟁과 시장구조<br>-소득분배<br>-시장실패-외부효과, 공공재, 자원이동의 비산축성, 부당한 경쟁,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 정책의 반응<br>-정부의 역할-조세, 자원・상품・용역・화폐 지급의 순환에서의 정부의 역할 |
| 거시경제개념 | -국민총생산<br>-총공급, 총수요<br>-실업-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주기적 실업<br>-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br>-금융정책, 재정정책<br>-절대 및 비교우위, 무역장벽<br>-국제수지와 환율<br>-성장과 안정의 국제적 측면 |

자료: 김영용, “고등학교 경제교과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한국교육경제학회, 2002, p. 162.

미국의 학교 경제교육 내용구성을 보면, 경제체제(economic sysytem), 경제제도와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의 두 가지 경제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의 일반화를 4-5학년 수준, 7-9학년 수준, 10-12학년 수준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내용구성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 경제교육이 크게 확산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50]

첫째, 미국의 청소년 경제교육의 내용은 효율성 중심이며 경쟁력 중심이라는 점이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원의 희소성, 기회비용, 비교우위, 국제무역, 기업가 정신들을 가르친다. 둘째, 경제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국 규모의 방대한 전문조직을 통하여 청소년 경제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51] 넷째, 실생활 중심의 내용이며, 현대와 미래의 상황 요인, 청소년들의 수요 요인을 고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52]

미국경제교육학회 NCEE(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외에 미국 상공회의소도 경제교육 전담과를 두고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장・기업인・경제인・경제제도 및 경제체제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책자・슬라이드・필름 등을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무경제교육(생산・제조・판매 교육등)을 담당하는 기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출입・무역・국제통신・경제 등에 대한 이해를 실습을 통해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또한 경제교육용 비디오・슬라이드・영화 등의 시청각 교재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기업들도 다수 있다.[53]

---

50) 임천순, 『선진국의 교과정책과 경제교과 편제』,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1995, pp. 55~56.

51) 박용경, “경제위기와 학교 경제교육”, 『동아시아연구논총』, 1997, p. 83.

52) 유학수, 전게논문, p. 22.

2) 영국

영국의 경제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에 따라 그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다루기 힘들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고교 졸업 후 진학 시 대학과정에서의 전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준에서의 경제교육은 상당히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결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경제생활에 대한 기본개념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개념은 희소성과 선택,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적 효율, 기회비용의 소득과부, 생산, 특화, 교환,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수출과 수입 등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 생산자, 산업, 투자, 유효수요, 시장조사, 비용과 수익 및 균형의 개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차이, 세계 각국의 경제적 생산력의 차이 및 국제 무역 패턴의 차이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소비자, 생산자, 일반 시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제교육은 두 가지 과정, 즉 사회과학 개론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학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전문 과정에서는 경제학 자체를 다루고 있다. 영국의 경제교육은 일상의 경제교육에서 시민의 역할을 학습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경제 전체에 대한 심화 학습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공공 재정에 관한 학습 코스가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54] 중등학교 연령층의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경제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수준의 지적능력을 지니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살

53) 김정신, 전게논문, p. 16.

54) 김영용, “고등학교 경제 교과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8호, 2002, p. 164.

아갈 세계와 그들이 접하는 경제사회의 복잡한 운영 이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학생들이 장차 접촉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세력과 기관 및 경제적 행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현대 산업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경제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사회과학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55]

경제학은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수 이후의 단계(16세 이상)에서는 경제학의 중요한 위치가 점차적으로 침식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모든 수준에서 기업연구의 빠른 성장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학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였고, 대학 이전 경제학 교육과정의 내용에 있어 1950년대 이후의 중요한 변화들은 이제 충족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 사용을 위해 고안된 경제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지금 영국에서도 사용을 위해 표준화되어지고 있다. 경제교육의 개발을 위한 대안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 검사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장래의 프로그램은 교수-학습모델의 좀 더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취의 표준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된다.[56]

3) 일본

일본의 경제교육은 과학적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경제적 사상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교과라 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 및 공민과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경제성장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일본의

55) 이태근 외 3인, 전게서, pp. 318~320.

56) 조병철, 『국제적 시각의 경제교육』, 문창사, 1997, p. 225.

학교 경제교육은 교육을 통한 현실 경제현상의 과학적 인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학교 경제교육의 특징은 일본경제의 강조, 건전한 직업의식과 노사관계의 강조, 국민복지 및 경제윤리의 강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조, 일본식 자본주의의 이해, 국민적 교양으로서 경제교육의 실시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개념의 이해와 합리적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하는 미국의 경제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57]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 경제 구조 및 경제 제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일본의 자본주의 구조와 노동 생산, 산업의 현실적 이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제교육에서 볼 수 있는 내용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 이해와 경제현상 및 역사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즉 일본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경제 현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관계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직업생활의 의의를 이해시키고 있으며, 현대 생산조직과 관련하여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국민복지 문제와 경제윤리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과 노동 조건의 개선, 소비자 보호, 사회 자본의 정비, 공해, 환경보전, 자원과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58]

일본의 경제교육은 고등학교의 경우 '현대사회', '정치・경제'의 경제 분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정치・경제'과목의 목표는 넓은 시야에서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현대에 있어서 정치・경제・국제관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킴과 동시에 이를 여러 과제에 고찰케 하고, 양식 있는 공민으로서 필요한 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 일본의 고교 경제교과서는 정치・경제로 통합된 검인정 교과서로서 면수가 적다. 일부 선진국과 같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57) 이은일, 전게논문, pp. 43~44.

58) 김영용, 전게서, pp. 163~164.

위하여 교과서가 얇아지는 경향을 띠는데 일본에서는 200면 내외의 교과서 가운데 그 반의 지면으로 시장경제의 기초개념으로부터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역할까지 압축하여 다루고 있어 학생들의 이해보다 암기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의 경우 집필자의 생각을 가다듬은 서술과 도표의 이용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은 지면은 비교적 많으나 짜임새가 미흡한 우리의 교과서 집필에 크게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다.[59]

학습지도의 특색으로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론보다는 제도와 역사, 현황 분석적인 면이 강하다. 즉 경제학이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경제학 지향이 강하다. 오늘날까지 일본 경제학계는 전통적 마르크스 경제학의 영향이 강했다. 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경제교육에서도 자본주의 비판, 노동운동 중시의 경제학이나 발전단계설에 기초한 경제역사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영향은 현재 많은 교과서에 경제 발전사나 일본 경제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근대 경제학적 발상은 희박한 현실이다.[60]

59) 주학중, “학교 경제교육에 있어서 한·일간의 공통과제”, 『한국경제교육학회보』, 제4호, 1995, p3.

60) 이주형, 전게논문, p. 33.

<표 Ⅲ-5> 일본의 경제교육

| 구 성 | 내 용 |
|---|---|
| 경제사회와 경제체제 | -인간과 경제<br>-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변화<br>-사회주의 경제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 |
| 현대의 경제 | -현대의 시장과 기업<br>-국민소득과 국부<br>-경제변동과 경제성장<br>-금융과 금융정책<br>-재정과 정부의 경제정책 |
| 현대경제와 복지의 향상 | -일본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br>-식량과 농업문제<br>-자원・에너지와 일본경제<br>-공해방지와 환경보전<br>-도시문제<br>-물가문제<br>-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자 문제<br>-중소기업 문제<br>-노사관계와 노동시장<br>-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 -국제경제의 특징<br>-국제협조와 국제기관<br>-국제경제의 현황과 과제<br>-국제경제에서의 일본의 역할 |

자료: 김영용, “고등학교 경제교과과정 및 교과서 분석”,『경제교육연구』, 한국경제교육학회, 제8호, 2002, p. 163.

일본 경제교육의 내용 구성의 특징은 경제학 이론 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국의 경제 사회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현실 경제문제를 도입하며, 경제 국제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다. 특히 일본 경제현상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경제교육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부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초·중·고에서는 전통적인 문부성의 커리큘럼 지도하에 지금도 과거와 같은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목표는 한국과 같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 등은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일본교육의 목표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육성하는 데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경제생활교육의 강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TV나 신문·방송 등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는 것으로 소비자로서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라고 한다.[61]

### 4. 외국 경제교육의 시사점

외국의 경제교육은 제도나 방법 면에서 각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경제문제의 발생원인으로부터 특화와 교환의 이득을 기술하고,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자본주의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국가와 약간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62] 그리고 영국은 대학 진학시의 전공과 관련하여 선택하는 것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교육의 목표에서 미국은 '경제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 있는 시민이 되게 하려는 것', 일본은 '훌륭한 시민으로서 훌륭한 일본인이 되는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두고, 경제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법과 보

61) 김춘선, "해외 경제교육동향",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1997, p. 180.

62) 김영용, 전게논문, p. 164.

다 깊고 넓은 사회인식을 하는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것', 영국은 '현대 산업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것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각국이 추구하는 경제교육의 목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과 「경제」과목의 총괄목표인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 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을 외국의 경제육의 목표와 비교해보면, 이는 한국의 경제교육의 목표도 외국의 경제교육과 별다른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서의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63]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의 하나로 취급하여 학생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떠나,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미국경제교육학회 NCEE(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는 예산 면에 있어서 83%이상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지출해 상대적으로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0여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우 많은 기업들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는 규모나 그 짜임새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인식에 있다. 경제교육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균형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역시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경제교육을 받은 신입 노동자는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용이나 저축,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 등에 있어서 보다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

63) 고윤진,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18.

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는 금융기업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경제교육에서 교육자인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네트워크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시범적 운영이 있을 뿐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도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는 정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NCEE(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주관으로 매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공유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제교육 공급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나 외국의 경우 모두에게 일차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교육당국이 제정한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주 정부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미국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지만 학생 취향에 따라 과목편중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차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중학교 과정은 일본이 2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1시간보다 30%정도 많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일본이 17.5시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10시간에 비해 1.7배 이상 많다. 미국의 경우, 경제과목을 이수한 5단위 이상 수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단위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25%수준이다. 차세대에 대한 교육상 시대적 낙후는 그 자체를 영속시킨다는 사실과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명심하여 각국의 경제교육계는 학교 경제교육의 발전에 보다 더 진력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64]

---

64) 주학중, 전게논문, p. 3.

# Ⅳ.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

### 1)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을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는 수업을 의미한다. 수준별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은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수준별 교육은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되, 현실적 여건의 제약 때문에 개별화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화 수업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을 그들의 능력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업을 하였을 경우, 하위 집단에 속한 학생들 간에는 부정적인 상승효과로 인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그 결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잘 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해 준다. 상위 집단 학생들은 하위 집단으로 밀려날까 불안해하고, 하위 집단 학생들은 하위 집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대체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영어도 못하고 다른 과목들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런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하위 집단에 속하게 되어 학습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명시적으로 찍히게 되어 오히려 더 치명적인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 심화·보충형에서는 다른 유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과별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어떤 준거, 기준으로 심화 또는 보충 학습 내용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 심화·보충과정 운영으로 인해 기본 과정 학습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 기본과정 중심의 평가로 인해 심화·보충 학습이 소홀히 되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내 동질집단 편성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부작용도 나타났으며 보충 집단 학생들의 열등감, 소외감 문제 등이 보여 졌다. 또한 보충집단과 심화집단을 나누는 기준의 모호성, 평가시 기본 내용만을 평가하기에 심화집단 학생들이 학습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지적되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심화과정의 학습자들에게는 고차적 사고의 기회를 강화하고 넓힐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보충 과정의 학습자에게는 기본 과정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위한 교육환경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현장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교재연구나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잡무로 인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전공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건으로 교과 전담실을 마련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질 높은 교수학습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 등의 수준별 학습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에서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이 추구한 기본과정, 심화과정, 보충과정의 내용으로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65] 또한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전문화·다향화 되지 못한 채 인문고교로 구분하여 중학교까지 이어오던 인문·자연계 성적순으로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정보고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가는 곳으로 인식시켜 왔으며 실제로 그렇게 편성되었다. 그래서 결국 인문고교 내에서의 직업교육과 정보고교 내에서의 진학반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인문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5) 오정아,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59~60.

첫째,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축적의 교육으로써 경제이론 위주의 수업이 되어 전체적인 경제의식을 배양할 수 없다. 둘째, 용어 및 내용이 다소 어렵고 난해하여 주입식 수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배당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단순 암기과목이 되었다. 넷째, 이론 중심이므로 현실 및 교육 수요자의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이 방대하다.

정보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설 학원의 또 다른 모형으로서 단순 기능습득에 치우쳐 있다. 정보고교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정보고교에 대한 인식만 더욱 저하시킬 뿐이다. 실제로 상업계 교육의 활용도를 보면 졸업생의 경우에 기대수준은 관리자와 거의 비슷하나 만족도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것은 단순작업 즉 워드프로세서 이용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관리자 측면에서는 정보나 컴퓨터 시스템은 잘 모른다는 것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둘째, 교육내용이 실습 및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위한 설명에 그쳐 생산·소비생활 등 경제인으로서의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성적이라는 단일기준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결국 상대적인 지적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만 정보고교로 배치시킨 결과가 됨으로써 사회적인 인식은 물론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서의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의 부족은 또한 직업교육에 있어서 단순기능 습득에 치우치게 하며 기본적인 교양교육의 부족으로 사회진출 후 다시 사회에서는 정보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66]

2) 교과서 내용의 난이성

경제 관련 교과서는 경제교육의 목표, 즉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66) 김우원, “상고생의 상업경제 교과에 대한 태도연구”,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 43~44.

배양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소양을 지닌 시민의 양성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67]

현행 경제교과서는 배당된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주제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교과서가 구체적인 실례의 제시도 없이 지나치게 이론이나 개념을 위주로 하여 경제원론의 축소판 형식으로 편제되어 있는 까닭에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7차 교육과정 이후 일부 교과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은 암기위주의 단편적 경제지식의 주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방식 배양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교과서가 이론 개념 위주로 딱딱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68]

경제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분량과 다루는 내용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제한된 면수에 너무 많은 항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압축되고 추상화되어 결국 난해한 교과서가 되고 있다.

둘째, 너무 많은 오류와 부적절한 설명이 있어서 교과서 내용의 신뢰성을 매우 낮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내용의 초고과정이나 편집과정에서 내용을 검토, 평가하고 오류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설명은 압축된 설명과 함께 교과서를 더욱 난해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구성상에 있어서의 문제로는 작은 교과서이면서도 내용의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용의 배열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중복, 일

---

67) 윤현섭,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의 경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43.

68) 김경근,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경제교육』, 한국개발원 국민경제연구소, 1992, p. 4.

관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주어지고 있다.

넷째, 가치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고 주입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올바른 가치의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겠다.[6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도 단순한 경제 관련 지식을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생활과 관련해서 삶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교과서이어야 하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 능력을 개발해 주는 교과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며,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사회 변동의 전망과 그 대응에 필요한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서의 발행제도는 현행의 중앙 집중적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교과서는 경제교육 센터 혹은 경제교육 위원회 주도 하에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경제교육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실제 수업과정에서 선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과서 검정이나 교과서 회사의 제정들이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14종이나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우리나라도 교과서 발행제도를 민영화하여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면 교과서 내용이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70]

3) 경제교육 시수의 비중 축소

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및 교육 여건 아래에서는 경제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경제 분야는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고 상대적으로 난해한 것으

69) 노태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보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39~40.

70) 김용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경제 영역 비교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48.

로 알려져 있다. 교사들로서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면 자연히 교수 방식에 있어서도 이해를 위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주입식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포기한 채,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잡다한 용어나 개념 등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현주소이다.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및 입시문항에서 경제 분야가 점하고 있는 낮은 비중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71]

경북대 오영수 교수의 분석에 의한 아래의 <표 Ⅳ-1>를 보면 중학교 이후의 경우 경제교육내용의 비중은 단원 수로는 9%(3/34), 수업시간으로도 11%(49/442)에 불과하며, 이는 지리(단원 기준38.2%), 세계사(26.5%)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나마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경제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표 Ⅳ-1>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단원 구성 및 수업시간

| | 합계 | | 지리 | | 세계사 | | 일반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 | | |
|---|---|---|---|---|---|---|---|---|---|---|
| | | | | | | | 일반사회 소계 | | 경제 | |
| | 단원수 | 수업시간 | 단원수 | 수업시간 | 단원수 | 수업시간 | 단원수 | 수업시간 | 단원수 | 수업시간 |
| 중1 | 10 | 102 | 7 | 71 | 3 | 31 | - | - | - | - |
| 중2 | 7 | 102 | - | - | 4 | 58 | 3 | 44 | - | - |
| 중3 | 7 | 136 | 2 | 39 | - | - | 5 | 97 | 2 | 39 |
| 고1 | 10 | 102 | 4 | 41 | 2 | 20 | 4 | 41 | 1 | 10 |
| 합계 | 34 | 442 | 13 | 151 | 9 | 109 | 12 | 182 | 3 | 49 |

자료: 오영수, “경제학,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야 할 것인가”, 『경제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05, pp. 29～52.

71) 김재원,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2003, p. 69.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적성이나 흥미에 관계없이 일부 도구 과목의 학습에만 치중하고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과목을 등한시하는 현상이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경제」과목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교육은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대적 필연성을 지니므로 대표적인 과목이라 하겠다. 「경제」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절실하다.[72]

4) 교수-학습 지도 방법의 개발 부족

20세기가 교육의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라면 21세기는 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학교교육의 외적 원인인 사회 환경이나 가치관 등의 변화는 바로 교육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며 21세기 교육의 질적 발전은 개체·물질보다는 정신, 지식이나 전통의 수용보다는 새로운 모형의 패러다임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학교교육 제도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1987년에 지적된 경제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서가 추상적인 이론 위주로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며, 경제교육에 대한 능력과 관련된 교사양성의 문제 및 현직 연구 과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그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로 경제지식(주로 개념과 이론으로 구성되는 경제학적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이해도와 흥미부족 등이다.[73]

실제 수업에서 전개되어야 할 경제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경제교육의 목표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고, 내용을 충실하게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72) 김경근, 전게논문, pp. 110~111.

73) 김정호, "경제윤리와 경제교육", 『사회과교육』, 제2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5, p. 3.

하는데, 그 동안 사회과 경제 분야의 지도 방법은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습 지도 방법으로 개념학습, 토의학습, 문제해결학습, 협동학습, 모의역할 학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74]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미국의 교수-학습방법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비판되거나 타당성에 관한 깊이 있는 검증 없이 우리의 경제교육 현장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자주 쓰이는 교수-학습방법에는 탐구 방법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권위와 교과서 중심의 일방적인 암기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식 전달과 기억 위주의 강의법이 실제 수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식·주입식·암기식 위주의 교수-학습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공통사회와 경제 과목 모두 현재 주당 2시간 수업으로서는 소화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교사가 학생들의 수용 능력과 지적 수준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많은 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경제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는 어렵다는 인식만 늘려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오직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 1점이라도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는 예년의 출제 경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소위 족집게 식의 내용 정리와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교수-학습 방법만이 최선의 수업형태로 인정되고, 학생 스스로 문제 인식을 갖고 탐구하거나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을 위해 교사가 나름대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7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 2001, pp. 12~1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공개 수업이나 공식적인 수업 연구 발표회에서나 볼 수 있는 수업형태가 아니면 아예 입시를 포기하고 있는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75]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에게 소외된 상태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어려운 경제이론을 실용성 위주가 아닌 이론의 암기위주 수업에서 오는 학습에 대한 의욕감소와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동적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심과목인 영어와 수학은 대학입시에 배점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경제나 정치 등 주변과목에서 교사는 일방적으로 제 할 일만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가르치는 교사도 어렵다고 하는 경제이론을 학생들이 어떻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제교육만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76]

5) 교사양성 및 재교육의 한계

교육의 질 또는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이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이를 위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77]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현황과 교사양성,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78]

첫째, 교사의 양성과정에서 경제 분야의 수강과목의 수를 보면 <표 Ⅲ-5>에 나

75) 박준석, 전게논문, pp. 41~42.

76) 노태운, 전게논문, p. 36.

77) 김관수, “중등 사회과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과정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1994, p. 7.

78) 김관수, 상게논문, pp. 36~38.

타나있듯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의 경제학 수강과목수가 3~4과목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경제학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교사까지 있다.

<표 Ⅳ-2> 대학 재학시 경제 분야 수강 과목 수

(단위: %)

| | |
|---|---|
| 수강하지 않음 | 2.6 |
| 1~2과목 | 36.2 |
| 3~4과목 | 26.0 |
| 5과목 이상 | 35.2 |

주: 국민 경제교육 연구소가 경제 분야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일반사회 담당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임.
자료: 김관수, "중등 사회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과정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1994, p. 24.

사회과 교사자격의 경우, 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의 자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사회과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법학을 전공한 교사가 경제학을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질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교사의 대부분이 직전교육 단계에서 경제관련 과목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교육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교사로 나서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담당자로서 교육준비정도나 자질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둘째, 중등 교사양성과정상의 문제점이다. 현재 중등 교사 양성기관은 크게 사범대학, 각 대학의 교직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경제학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과의 전공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사양성의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 교육체제가 전문화 내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와 일반대학을 졸업한 교사 간에 교직관이나 교육관, 수업 능력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현직 경제 담당 교사들의 연수를 통한 재교육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제교육 개발프로그램과 같은 한국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형식적인 교사연수가 아닌 실제 수업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직 교원 연수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경제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능동적, 적극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의 실천을 위하여 교사의 헌신적인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주어진 내용을 학습자가 최대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구안하여 적용, 실천하는 주체이다.

교사는 모든 유형의 교육활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국민교육 및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사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여 피교육자가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교사의 자질이 필요하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실한 직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날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학문세계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운 교육이론을 익혀 학습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직연수를 통한 학문적 재충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양성 대학에서는 적어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과목을 공부한 사람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과 교사 자격 표시는 지리교사, 역사교사, 일반사회교사, 국민윤리교사(도덕) 그리고

공통사회 교사가 있다. 이 중에서 일반사회교사들은 양성 당시에 최소한 경제학을 2학기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사회 자격 교사의 경제학 소양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경제학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경제교육 담당교사의 경제학 소양을 높이는 길이다. 대도시에서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각 과목의 교사가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담당하지만 중소도시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전공영역 혹은 표시 자격증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 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 가정, 제 2외국어(독어, 불어 등) 표시자격 교사들이 단기간의 연수를 통하여 공통사회 과목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학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목과 같이 일반사회 표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경제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체능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교사가 이웃하는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자신의 전공인 경제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경제 담당교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사회과, 경제담당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담당교사의 우수 수업 사례 선정 포상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79]

경제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지식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 교수법이다. 각종 교사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은 연구자들에게 경제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묻곤 한다. 경제를 재미있게 가르치고는 싶지만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 책을 읽고, 정리해주고, 암기시키는 정도의 수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내용 지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것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학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경제교사를 경제교육의 첨병을 인식하고, 이들을 매개로 올바른 경제교육을 미래의 주역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구체적으

79) 김진영, “경제교육의 비전과 전략”,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KDI 학국경제학회 공동세미나, 2006, pp. 19~20.

로 젊고 열성적인 교사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원할 수도 있고, 각종 경제교육 기관에서 경제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도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 연수 시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80]

##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 1)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

오늘날 우리의 경제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경제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정보화・개방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소비자, 생산자로서의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적 의사결정능력과 가치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은 학교 경제교육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교육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며, 단편적 주입식 또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되기보다는 경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서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81]

경제교육은 삶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제문제를 인식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각 단체나 개인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학자들을 전공에

---

80) 김진영・박형준,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4, pp. 37~38.

81) 문상민, 전게논문, p. 63.

맞추어 역할 분담을 시키고, 경제학자들은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경제문제와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무엇이 교육상 필요한 경제 개념이나 이론인지를 논의하고 그것을 경제교육학자와 같이 교육 논리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학생 위주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관, 지식관 등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가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를 따라서 다양한 형식의 학습요소를 제시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이론과 지식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사조에 의해 계속 변해가는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능력과 시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경제교육 방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 현재의 경제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82]

첫째, 경제교육이 사회과의 한분야로 취급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학문의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을 가지고 타 분야의 학문들을 선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연구와 실증조사방법을 통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은 언제까지나 경제학 논리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는 경제교육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의 선택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입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경제」과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경제교육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시간이다. 계속적으로 경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에 대한 마인드 없이 사회로 나간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82) 상게논문, p. 65.

다름이 없다. 현실에서는 경제 분야의 비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경제는 계속적으로 미미하여 오히려 지금은 축소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발맞춰「경제」과목이 그 위상을 되찾아야 하며 교과서의 분량에 맞게 시수를 늘리고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되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경제교육이 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가장 큰 특성인 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육내용도 획일적이지 않고 훨씬 다양화되고 세계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교육 방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상 유용한 자료를 개발하고,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경제교육 내용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교육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선정해야 한다. 현실 경제생활을 이해하고 경제문제 해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적 선택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학 개념이나 이론을 활용하되 경제학의 추상적인 이론체계 자체를 가르치는 경제학 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사성 있는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문제를 보다 현실감 있고 흥미롭게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교육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서는 관련 교원의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의 교사 양성과 연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교육정책 당국의 교사 양성 제도 및 양성 기관의 운영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과서와 교사 자신의 교직 경험에 의존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관련 교과 교사의 내실 있고 알찬 내용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교수의 질과 기법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연구와 개발이 서둘러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의 질적 향상은 바로 학생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83]

2)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

학교의 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기초 경제 개념의 의미를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방법과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84]

이제까지의 경제 수업은 판서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문활용교육(NIE), 역할극, 체험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NIE가 있다. NIE는 교과서 지체를 극복하고 이론과 현실의 접목이라는 차원에서 경제교육 현장에 투입되면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실제로 경제 이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학생들의 이해가 더디다. 그러나 현실 속의 자료를 직접 보여주며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이해한다.[85]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봄으로서 경제의 구조가 소비자, 생산자, 정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수업 시간에 듣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역할과 행동을 하는지 등의 경제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면 훨씬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며 다른 내용과 접목하기도 쉬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재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그 수업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활동학습과 프로그램학습을 응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교사의 말은 가장 최소화시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83) 상게논문, pp. 65~69.

84) 한진수, “신문을 활용한 경제교육,” 『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2004, p. 50.

85) 김정신, 전게논문, p. 61.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86] 학교 경제교육은 중요과목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수업 시수가 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학생이 경험할 만한 경제문제 또는 시사적인 사건을 그룹별 과제로 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도출 및 적용하여 경제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주입식 암기에서 탈피하여 그룹별 과제를 토의 및 발표를 통해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도 변화되어야 한다.[87]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이 배우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도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대학생이 배우는 경제학원론의 내용을 축약해서 옮겨 놓은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이 배우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것은 교과서가 많은 내용을 담은 반면 개념이나 원리 등의 설명이 부족하며 그것이 실생활과 연결 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부족하게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경제주체가 되는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지식을 익히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교육의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교과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경제교육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선정해야 하고, 시사성 있는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 문제를 보다 현실감 있고 흥미롭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교육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문제, 에너지 교육, 환경 교육 및 통일교육 등의 우리의 당면 과제로 부과된 내용도 포함시켜 현실감 있게 구성하여 이러한 경제교육의 학습 내용들이 단위 배당 기준과 수업 시수 안에서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내용을 선정하여 축소·조정하고 가능한 단원별 분량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8]

---

86) 상게논문, p. 62.

87) 안경연, 전게논문, p. 46.

학교현장에서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생산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 그리고 노동과 소비의 주체인 개인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입 자유화, 무역 불균형 및 무역 마찰, 원화의 평가절상, 노사문제, 증권 투자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절한 정보와 문제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우며 권리나 정치적 힘을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행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교육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잡한 현실문제에 대해서 손쉽고 성급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 들며 또한 냉정한 이성보다는 과격한 선동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원리 및 우월성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으로 보아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홍보 자료나 수치를 외우는 식의 경제교육보다는 자유시장 경제체계의 원리와 현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제이론을 습득시키는 면보다는 생활과 관련된 경제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생활과 관련된 경제란 특별히 특정의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이론위주의 학습을 강조하였던 과거의 학교 경제교육 내용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학교 경제교육이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다량의 개념이나 원리를 실생활과 접목시키지 못함으로써 교사나 학생들에게 어렵기만 하고 흥미가 없는 학습영역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한 반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경제관련 과목 지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학습 자료가 빈곤한 우리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제교육이 소

88) 최병철, “제6차 및 7차 사회과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 46~47.

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만화, 동화-슬라이드, VTR 자료들을 개발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조되어야 한다.[89]

3) 가정 및 사회에서의 경제교육 강화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태도 등 합리적인 경제생활 태도와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올바른 자세를 지니도록 지도하고 이를 가정과 사회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다소 물질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반면, 그 부산물로 사치, 낭비, 퇴폐, 향락, 무질서, 자연환경의 훼손, 극단적 이기주의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충동구매, 낭비, 버릇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생활을 누리게 하여 이웃과 협동하는 생활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고 느끼게 하여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통해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과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창의적으로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외형적인 실적 위주의 전개보다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활태도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교장 및 교사의 훈화, 주생활 목표 설정 및 시사 계기 교육을 통해 이론 중심보다 생활경제 중심으로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급회, 학생회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과소비, 사치풍조 배격, 국산품 애용 등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과소비 억제 교육이 외래품 배격운동으로 이어져 외국과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90]

---

89) 김성환,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향”, 『경제교육』, 교육인적자원부, 1999, pp. 66~67.

시민단체, 기업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경제교육 관련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과 국가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추진할 경제교육기구 및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경제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밖에서 학교 경제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구나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보조 자료를 개발, 공급하고 교사들을 위하여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에서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및 교사연수 등 학교 경제교육을 위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소 및 기관이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설립되어 범국민적 차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91]

경제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관계에 대한 무감각, 도덕성에 대한 감수성의 둔화, 지식과 행동의 불일치, 기초적인 생활 질서의 미확립과 이로 인한 독과점의 폐단과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쟁에 의해 심화된 빈부의 격차, 대기업의 역기능과 거짓, 사기, 착취 등의 비인간적인 현상의 발생은 경제교육의 한계를 보여준다.[92]

경제적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유는 공공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 돈이라고 할지라도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윤리이다. 특히 인생의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생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 즉 청소년에게 담배와 음란 비디오 등 유해한 생산물을 생산·판매행위와 같은 것은 경제 윤리에

---

90) 상게논문, p. 68.

91) 최병모,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편성과 운영”, 『경제교육연구』, 제16권, KDI 경제정보센터, 2000, pp. 94~95.

92) 안병근, “학교경제교육 내용으로서의 경제윤리 덕목의 탐색”, 『경제교육연구』, 제5호, 한국경제교육학회, 1999, p. 147.

위반되는 것이다. 복지사회에서 이러한 경제 행위에 대한 통제는 경제 윤리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93]

93) 상게논문, p. 69.

## Ⅴ.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경제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제교육의 기본방향은 경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의사결정들은 개인의 행복한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교육의 중요한 요소는 경제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경제적 소양과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여 경제 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경제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경제학이 현대 사회의 시민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강조 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경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경제학이 이론적 분석, 인간의 복지에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과학의 엄밀성을 결합한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변화하는 현실 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학습자가 변화하는 동적인 세계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94] 경제학이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경제교육은 오히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교육과정 속에 경제교육 내용을 어떤 것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래 경제 주체들인 청소년들의 경제관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내면화가 잘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고 또 쓰임새가 많다. 경제교육은 지식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경제문제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현행 경제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

94) 김진영, 전게논문, p. 4.

과 같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이다. 학생들을 능력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업을 하였을 경우 하위 집단에 속한 학생들 간에는 부정적인 상승효과로 인해 오히려 학습효과가 떨어진다.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교과별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보충집단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보충집단과 심화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심화과정의 학습자들에게는 고차적 사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보충과정의 학습자에게는 기본과정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위한 교육환경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잡무로 인해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전공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상의 문제이다. 현행 경제교과서는 배당된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주제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교과서의 분량과 다루는 내용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오류와 부적절한 설명으로 내용의 신뢰성을 매우 낮게 하며 구성상에 있어서는 내용의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치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고 주입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올바른 가치형성이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경제 관련 교과서도 단순한 경제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생활과 관련하여 삶의 경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교과서이어야 하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 능력을 개발해 주는 교과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교육 시수 부족의 문제이다. 현재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아래에서는 경제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교사들로서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면

자연히 교수방식에 있어서도 이해를 위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주입식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잡다한 용어나 개념 등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및 입시문항에서 경제 분야가 점하고 있는 낮은 비중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적성이나 흥미에 관계없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과목을 등한시하는 현상이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수-학습방법 측면의 문제이다. 현재 경제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수-학습방법에는 탐구 방법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권위와 교과서 중심의 일방적인 암기식 교육으로 지식 전달과 기억 위주의 강의법이 실제 수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공통사회와 경제과목 모두 현재 주당 2시간 수업으로는 소화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오직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이론을 실용성 위주가 아닌 이론의 암기위주 수업에서 오는 학습에 대한 의욕감소와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동적 교수-학습방법의 문제이며 경제교육만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양성 및 재교육상의 문제이다. 교사의 양성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의 경제학 수강과목수가 3~4과목을 넘지 않고 있으며 중등교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경제학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과의 전공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 교육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직 경제 담당 교사들의 연수를 통한 재교육이 부족하며 현재 경제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수-학습방법의 실천을 위하여 교사의 헌신적인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충실한 직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교육이론을 익혀 학

습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직 연수를 통한 학문적 재충전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경제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지식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 교수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 경제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개념과 응용 예 등은 수요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에만 그칠 것이므로 이들이 받아들이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의 형태라든지 소재는 물론 이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본 토대의 구축 없이는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토대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접해야 하는 경제생활의 여건은 물론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이해가 가능한 경제교육의 범위를 의미한다.

# < 참고 문헌 >

## 【단행본】


강환국,『사회과교육론』, 학연사, 1988.

교육부,『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삼진인쇄주식회사, 1989.

_____,『고등학교 경제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_____,『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김병주 외 2인,『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춘선, "해외 경제교육동향",『경제교육』, KDI경제정보센터, 1997.

송대영,『사회생활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0.

이태근 외 3인.『경제교육론』, 교학연구사, 1988.

_____,『사회과 교수법』, 교학연구사, 1983

이영기, "사회과 교육과 경제교육",『교육개발』, 고등학교 경제교육 연수자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87.

조도근 외 6인,『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두산교육, 2002.

조병철,『국제적 시각의 경제교육』, 문창사, 1997.

서승환, "학생들의 경제 인식 및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향",『경제교육』,KDI 경제정보센터,2006, p. 4.


## 【논문】


강형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고윤진,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경근, "한국 고등학교의 경제 인지력 실태",『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

경제연구소, 1993.
_____,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1992.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교육논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집, 1998.
김용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경제영역 비교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영용, “고등학교 경제교과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8호, 2002.
김우원, “상고생의 상업경제 교과에 대한 태도연구”,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위곤, “고등학교 사회과과정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정신, “올바른 경제관정립을 위한 중등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재원,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2003.
김정호, “경제윤리와 경제교육”,『사회과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제21호, 1995.
_____, “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올바른 경제교육을』, 자유기업센터, 1997.
_____,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방향과 내용체계”,『경제교육종합교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2003.
김진영, “한국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교사가 바라본 학교경제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KDI 한국경제학회 공동세미나, 2006.
_____,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경제교육의 비전과 전략』, KDI 한국경제학회 공동세미나, 2006.
노태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보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도미라, “청소년 경제교육 내용과 체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문상민, “사회과목의 경제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준석,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송재희,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심현남,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안경연, “고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안병근, “학교경제교육 내용으로서의 경제윤리 덕목의 탐색”, 『경제교육연구』, 제5호, 한국경제교육학회, 1999.
오정아,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유학수, “청소년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윤현섭,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의 경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성표,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에 관한 연구』, KDI 한국경제학회 공동세미나, 2006.
이영기·윤용탁, “정치·경제교육론”,『사대논총』, 제21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80.
이진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은일,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효율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주형, “사회과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주학중, “학교 경제교육에 있어서 한・일간의 공통과제”,『경제교육』, 한국경제교육학회보, 제4호, 1995.

조도근, “사회과에서의 경제교육 고찰”,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17호, 1984.

최병모, “사회과 교육에서의 경제교육”,『교육개발 통권』, 34호, 한국개발원, 1985.

_____, “사회과경제교육론”,『사회과교육』, 제22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89.

_____,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편성과 운영”,『경제교육』, 제16권, KDI 경제정보센터, 2000.

최병철, “제6차 및 7차 사회과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피영로,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진수, “신문을 활용한 경제교육”,『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Youth Economic Education in Korea

Jung, Moon-Kyoung
Advisor : Prof. Oh, Sung-Dong, Ph.D.
Major in General Soci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process of present curriculum, the economic education executed as a part o f education of the social studies in the high school reconstructed the contents of economics in educational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decisio n making capacity and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that can understand the b asic principle of economic phenomenon and solve the economic problems rational ly. And it is to foster the present students who will be economic agents in the future to democratic citizens with the economic attainments by raising their atti tud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ccordingly, economy education is necessary to reconsider rationality and effi ciency of economy. As it is time that adolescence is more valuable and importa nt than that for general citizen.

But as for the economic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because most of studen ts thought that the ‘economic’ courser was difficult, they were reluctant to sele ct ‘economy’ , deepening optional course because of the education centered on t he college entrance in their schools.

For activating the economic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the suggestion of a

plan for improvement about the problems of present curriculum i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of the textbook is written hard, containing mainly theories a nd concepts. The content is not appropriate to cultivate rational way of thinkin g, because it is composed of fragmentary economic Knowledge to emphasize onl y memorization.

Second, it needs to change the situation that the present 'economic' course is an optional course into the common required course in order to enhance the wei ght of economic education, and it needs to increase the economic of present cur riculum is as follows.

Third, studeis to develop a qualified textbook are necessary. Discharge of eco nomic education related teachers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ducatio nal materials are also necessary. because the spirit of educational procedures are realized at textbooks, multilateral efforts to develop a qualified textbook and dis semina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are necessary.

fourth, it needs to foster the teachers in charge of economic education and im prove the training system. And it needs that the students with sufficient econo mic education in the university in order to be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enter into the teachers a lot, Also, the training system as am object of present teache rs should be improved.

This suggestion will be helpful to the activation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We should seriously accept importance of economy education for ad olescence to expand and improve it, so that young people as a master of the fu ture have to understand economy in a wide manner and raise their thinking and sense of citizenship that cope with change in economy and society.